

‘좌완 부자’ KIA...경쟁 즐기는 김사운



팔꿈치 수술로 재활의 시간을 보냈던 김사운이 지난 11일 1군에 콜업돼 KIA '좌완 경쟁'에 가세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1년만에 마운드 복귀...“조급해 하지 않고 내 가치 입증할 것”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시리즈 갈 때까지 1군에 있고 싶어”



KIA 타이거즈의 치열해진 경쟁이 선수들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 KIA는 올 시즌 탄탄한 마운드로 눈길을 끌고 있다. 새로 가세한 제임스 네일과 윌 크로우가 '외인 투수 잔혹사'를 지우는 활약을 해주고 있고, 총총한 필승조는 KIA의 승리를 지키고 있다. KIA 마운드의 또 하나 강점은 '좌완'이다.

좌완 가세에 시달렸던 KIA는 공격적인 좌완 영입과 육성으로 마운드 체질을 바꾸고 '좌완 부자'가 됐다.

치열해진 좌완 경쟁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왼손 투수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선수들은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면서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

1년 만에 마운드에 복귀한 좌완 김사운도 '경쟁의 힘'을 이야기한다.

2022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SSG에서 온 김사운은 이적 첫해 KIA 유니폼을 입고 25경기를 소화했다. 지난 시즌에는 팔꿈치 수술 여파로 단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다.

그리고 김사운은 지난 11일 팔꿈치 통증으로 빠진 이의리를 대신해 1군에 콜업됐다.

4월 13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부상 복귀전에 나섰다. 이날 결과는 좋지 못했다. 2사에서 나온 소크라테스의 실책이 빌미가 돼 팀은 1이닝 7실점이라는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

아쉬운 출발이었지만 시즌 세 번째 등판이었던 20일 NC전에서는 김사운과 동료들이 환하게 웃었다.

9-1로 크게 앞선 8회초 마운드에 오른 김사운은 KKK를 찍으면서, 뜨거운 동료들의 환호 속에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부상으로 자취를 감춘 사이 KIA의 좌완 전력은 더 강해졌다. 김사운은 오히려 그 상황을 즐겼다.

김사운은 "마음고생은 없었다. 좌완이 좋은데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간다면 그만큼 내 가치가 입증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만큼 경쟁에서 이긴다는 생각이었다.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경쟁을 즐기며 시간을 기다렸던 그에게는 지도자들의 믿음도 힘이 됐다.

김사운은 "수술하고 1월에 합평에서 훈련했었는데 그때 코치셨던 이범호 감독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피로도 봐주시고, 일본 연습 가서 봤던 투수들에 대한 경험도 말씀해 주셨다. 일본 투수들을 좋아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손승락 퓨처스 감독도 김사운의 복귀에 힘을 보탤 것이다.

김사운은 "손승락 감독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투심도 던져보려고 하셨다. 그게 엄청 잘 맞았다. 재활 끝나고 피칭 시작할 때부터 감독님이 1대 1 맨투맨으로 봐주셨다. 그때부터 밸런스가 잘 돼서 꾸준히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시즌 준비 과정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부상'이 김사운을 다시 힘들게 했다.

김사운은 "안 아프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2군 캠프 가서 계속 아팠다. 팔꿈치랑 어깨가 안 좋아서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기도 했다. 감독님, 코치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1군에서 다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경기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김사운은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경쟁에서 살아남겠다는 각오다.

김사운은 "수술하고 손승락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있다. 우리는 매일 경기를 한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매일 자리에 있는 게 숙제인 것 같다"며 "어제 잘한 건 잊고 다시 던지고, 못 던졌던 것도 다시 재충전해서 던져야 한다. 좋은 컨디션이 매일 지속 될 수는 없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팀 분위기가 너무 좋다. 1년 동안 재활하고 등판했는데, 잘 던지고 내려왔을 때 동료들이 축하해주는데 퐁클했다"며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상대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느껴진다. 어느 구장을 가도 팬들 함성도 장난 아니다. 꾸준히 해서 조금이라도 팀에 보탬이 되고 시리즈 갈 때까지 1군에 있는 게 목표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챔 본선 직행’ 광주FC, 리그서도 반전할까

27일 광주서 수원FC와 K리그1 9라운드...5연패 탈출 도전

‘아챔 본선 직행’이라는 행운을 만난 광주FC가 리그에서도 반전에 성공할까?

일정 변경으로 한 주 쉬었던 광주FC가 27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수원FC와 K리그1 2024 9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앞선 7라운드 전북원정에서 1-2패를 기록하면서 5연패 늪에 빠졌다.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광주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광주가 플레이오프(PO)를 건너뛰고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었다.

광주는 지난해 K리그1 3위를 차지하면서 1부리그인 ACLE의 PO 티켓을 획득했다.

지난해 K리그1 우승팀 울산HD, FA컵(현 코리아컵)을 제패한 포항스틸러스가 ACLE에 직행했고, 광주는 PO를 거쳐야 본무대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호주프로축구리그 결과에 따라 광주에 행운이 찾아왔다.

호주 A리그 1위 팀이 ACLE에 출전하는데 현재 선두에 오른 웰링턴 피닉스(승점 50)는 AFC가 아

닌 오세아니아축구연맹(OFC) 소속이다. 웰링턴이 이대로 1위를 차지해도 ACLE 출전과는 상관없다.

다음 순위로 시선을 돌리면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센트럴코스트 매리너스(승점 49)가 2위를 확정할 상황. ACLE 티켓도 센트럴코스트의 차지가 됐다.

K리그 2위를 굳힌 센트럴코스트는 AFC컵 결승도 앞두고 있다. 센트럴코스트는 AFC컵 우승으로 ACLE PO 진출을 노리고 있었지만, 리그 결과에 따라 ACLE로 바로 가게 됐다.

이제 광주에 영감을 미쳤다. AFC컵 결승은 서아시아팀과 동아시아팀의 대결로 전개된다.

AFC컵에서 서아시아팀이 우승하면 광주는 PO 없이 ACLE에 출전하고, 동아시아 팀이 승리할 경우에는 우승팀과 8월 단판 PO 경기를 치러야 하는 방식이었다.

서아시아팀 센트럴코스트가 이미 ACLE 티켓을 가져간 만큼 광주에 PO 상대가 사라지게 됐다. 이와 함께 광주는 PO 없이 아챔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됐다.

리그 5연패에 빠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광주는 8월 PO라는 과제도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본선 직행이 결정되면서 PO라는 부담을 덜고 울산, 포항과 함께 아시아 최고 무대에서 광주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한편 ACLE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그룹별로 12개 팀이 홈과 원정에서 각각 4경기씩 총 8경기를 소화한다.

이후 상위 8개 팀이 홈과 원정 맞대결을 갖게 되며, 8강전부터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팀이 중립 지역에서 단판 승부를 벌인다.

광주는 구단 역사상 첫 ACL 대회를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 광주시체육회와 월드컵 경기장 시설 리모델링 및 보강 공사에 나서 2004년 바레인과 A매치 이후 첫 국제대회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양한 MD 상품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광주 노동일 대표이사는 "구단 역사상 첫 국제 대회 열리는 만큼 시민과 팬이 어우러지는 축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큰 무대를 앞둔 이경호 감독은 "광주 축구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최고의 경기력으로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광양제철고 손건호와 준프로 계약

광양제철고 공격수 손건호(18·사진)가 프로무대에서 뛰게 된다.

전남드래곤즈가 광양제철고 3학년 공격수 손건호와 준프로 계약을 맺었다. 2018년 준프로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남의 두 번째 준프로 계약이다.

173cm 65kg의 손건호는 윙 포워드는 물론 공격형 미드필드를 소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많은 활동량과 스피드를 갖춘 유망주다.

전남은 손건호를 U22 자원으로 활용해 공격 옵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건호는 이번 계약으로 전남의 '부자(父子) 선수'로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손건호는 전남 창단 멤버인 손백기 광양중앙초



여자축구부 감독의 아들이다. 프로팀에 합류한 손건호는 "먼저 기회를 주신 전남에 감사하다. 지도해주신 감독님과 코치님들과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프로 경기에 데뷔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장관 감독은 "U22 자원으로서는 좋은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손건호의 입단을 반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새, 여우의 트릭을 깨라

황선홍호, 신태용 감독의 인니와 26일 U-23 아시안컵 8강전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최대 분수령...객관적 전력 '우위'

‘여우의 트릭’을 깨고 파리행 7부 능선에 올라라! 황선홍(사진)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오전 2시 30분(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을 치른다.

2024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최종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 1~3위에는 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을 주며, 4위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 진출 여부를 가린다.

한국 축구로서는 많은 게 걸린 한판이다. 만약 진다면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대업이 무산된다. 파리행 티켓을 따내지 못한다면, 한국 축구의 주요 자산인 황 감독의 지도자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터다.

이런 가운데 상대 사령탑은 한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트릭작’ 신 감독이다.

현역 시절 워낙 자능적인 플레이에 능했고, 지도자로서도 ‘팔색조 전술’로 주목받은 신 감독은 ‘여우’, ‘트릭작’ 등의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신 감독을 상대로, 황 감독은 K리그 맞대결 전적에서 우위를 점했다.

둘은 신 감독이 성남 일화(현 성남FC)를 이끌고, 황 감독이 부산 아이파크와 포항 스틸러스 지휘봉을 차례로 잡은 2009~2012년 K리그에서 8차례 맞붙었는데, 황 감독이 신 감독에 3승 4무 1패로 앞섰다.

다만, 2011년 FA컵 준결승에서 황 감독이 이끌던 포항이 신 감독의 성남에 0-3으로 완패했다.

팀 자체만 놓고 봐도 인도네시아는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신 감독 체제가 들어선 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들을 대거 끌어들이고 자국 선수들의 기량도 끌어올리면서 ‘다른 팀’이 됐다.

리파엘 스트라워(탄하르), 이바르 제너(위트레흐트), 네이션 조아너(헤이렌베인), 저스틴 허브너

(세레소 오사카) 등 혼혈 선수들은 ‘유럽 체형’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인도네시아 출신 선수들의 체격도 왜소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무시 못할 수준이다.

한국이 과거처럼 피지컬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경험’ 면에서는 외려 신태용호가 황선홍호에 앞선다. ‘혼혈 4인방’을 비롯해 현재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의 상당수 선수가 올 초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A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반면 황선홍호에서는 엄지성(광주), 정상빈(미네소타), 강성진(서울) 정도가 A대표팀에 몸담은 바 있을 뿐이다. 이들 모두 A대표팀 ‘주전’은 아니다.

그레도 객관적인 가량 면에서 황선홍호 태극전사들은 인도네시아보다 우위에 있다.

대회 득점 랭킹 공동 선두(3골)인 이영준(김천)을 비롯한 공격진이 제 몫 이상을 해준다면, 황선홍호의 4강행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3차전에서 주전 선수들이 대거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충전했다. /연합뉴스